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189 보라색의 모든 것

예술가가 사랑한 보라색

●색채의 감정과 심리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예술가가 많으며, 감상적이고(sentimental)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이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면도 있지만, 인류를 사랑하거나 사려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성급하게 생각하면 우유부단한 면도 있으며,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보라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곧바로 하려는 타입이며, 사랑하면서도 상대에게 항상 성실을 요구하고, 자기 자신도 진솔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형식의 데이트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내내심이 강한 상대라고 해도 언젠가는 도망가고 싶은 것이다.

거나 멋진 남성과 만나고 싶은 감정이 적을지 모른다.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도 그가 찾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채의 기억
은은한 향기의 색으로는 보라색과 라일락(연한 보라색)이 있다.

퍼플 마운틴(purple mountain)은 '빨갭게 달아오르는 산'이 아니라 '장백한 보라빛 산'을 뜻한다.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초현실주의자 화가 빅토르 브라우너(Victor Brauner, 1903년~1966년)는 별자리 그림인 '쌍둥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괴테(J. W. Goethe, 1749년~1832년)는 책 '색채론'에서 카민 레드(카민 레드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언급

내기 때문에 퍼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고대의 퍼플은 파란빛이 도는 색이었다.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는 '퍼플 아이스(purple eyes)'로 유명하다.

디자이너 안나 수이(Anna Sui)는 어두운 보라색이나 보라색을 선호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도가다강(土家田歌)은 그의 저서인 '색채의 미학(1979)'에서 10가지 색의 느낌을 주장하였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하 였 다. "우리는 이 색이 높은 품격을 나타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하는 조합장 선거



취재수첩

김은지
전남취재부 기자
eunji.kim@jnilbo.com

풀뿌리 지역 경제를 책임질 수장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8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국 1347곳 조합에서 새로운 수장이 선출된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선거이자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 16명, 전남 130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며, 나머지 54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조합장선거는 선거구당 평균 선거인수가 200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선거지만 선출된 조합장은 고액 연봉이 보장되고 인사권·경영권 등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3회째를 맞은 이번 조합장 선거 슬로건을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으로 결정했다.

'돈선거'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불법

선거 예방·단속 활동과 함께 조합원 인식 개선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단 나흘 만에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20여건이 접수, 6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전남 선관위는 위반 사례를 고발한 4건에 대해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 역시 '혼탁·과열'이라는 수식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위탁된 이상, 이제 조합장선거는 공직 선거만큼이나 공공성, 투명성, 중립성이 강조돼야 한다.

후보자들은 두툼한 돈 봉투가 아닌 내실 있는 공약들을 들고 조합원들의 선택을 호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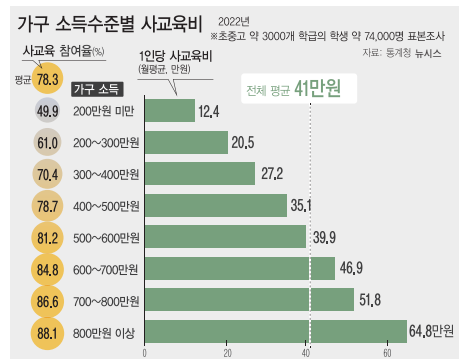
조합원들 역시 조합장을 선출함에 있어 '어느 후보자가 돈을 더 많이 쓰는지'보다 '앞으로 우리 조합을 이끌어나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로 후보자를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돈 봉투로 결정된 대표자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의 슬로건 중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중 현명한 선택과 희망찬 조합은 아직 실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부디 조합원의 깨끗한 한 표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미래차 대전환, 광주의 선택과 전략

기고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올해 초에 세계 최대 모터쇼로 변모한 'CES2023(세계 최대 가전·IT 제품 전시회)'에서 자동차산업이 최첨단 기술과 융합한 미래차로 대전환 중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인 생활영역의 확장공간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최신 첨단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이 있다.

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박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 2040년까지 기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100년 넘게 인류의 동력이었던 내연기관 차량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이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움직임 속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디젤·가솔린 차량 생산중단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2030년 늦어도 2035년쯤에 모든 차종의 미래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큰 변화를 넘어 '모빌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차로 대전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전기차 판매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늘고 있다. KOTRA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수소 자동차 생산은 2030년까지 신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미래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빛그린산단내 '미래자동차융합산업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와 부품인증센터, 빛그린산단융합지구

조성, EV산업 생태계 조성,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사업 등 국내 최대 미래차 개발 인프라 구축과 탄탄한 기업 지원 체계,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한 곳에 집적화하여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

현재 추진중인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이 지정되고 2024년에 '미래자동차 인증센터(예정)'가 구축되면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개발 시험장비 166종이 구비된 '부품클러스터 선도기술지원센터'는 R&D 및 원천기술 개발, '산학융합캠퍼스'는 친환경차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부품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할 '미래자동차 전환 ONE-STOP기업지원센터'는 R&D자금·전문인력, 기술·시장 정보제공 등 미래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에서는 자동차의 충돌·충격 안전성 시험·인증할 수 있으며 국내 유일 배터리 안전기준 전체 항목을 시험·인증할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부품 성능 향상을 위한 '배터리 모듈 팩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AI융합 미래차 시험 장비를 활용한 '무인특장차 시범사업'과 '자율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에도 적극 나서며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광주 미래차 산업의 성장 발판도 튼튼하게 마련해 가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개발중인 미래 모빌리티는 UAM(미래 항공모빌리티), PBV(목적기반차량), 로보틱스 등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PBV제작 공동협업 공장'을 구축하는 등 목적기반차량 사업화 전략을 마련해 가고 있다.

우리 광주는 국내 유일의 완성차 생산 기지가 2곳(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으로 연 72만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광주만이 갖는 경쟁력을 반영한 산업특화 전략을 실시하고 기업들이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광주가 IOT를 넘어 MOT시대, 모빌리티 신경계 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기하지 않게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